주요 천문 현상

4월

4일	18:46 청명(태양 황경 15°)
6일	12:55 합삭
13일	03:32 상현
16일	16:00 수성 외합
17일	00:09 토왕용사(태양 황경 27°)
20일	01:51 곡우(태양 황경 30°)
	19:25 망
22일	거문고자리 유성우(ZHR:18)
28일	23:12 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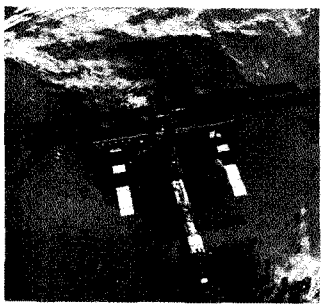
#토왕용사(土王用事) : 각 계절 끝에 해당하는 기간인 토왕지절(土旺之節)의 첫째 되는 날. 태양이 황경 27도, 117도, 207도, 297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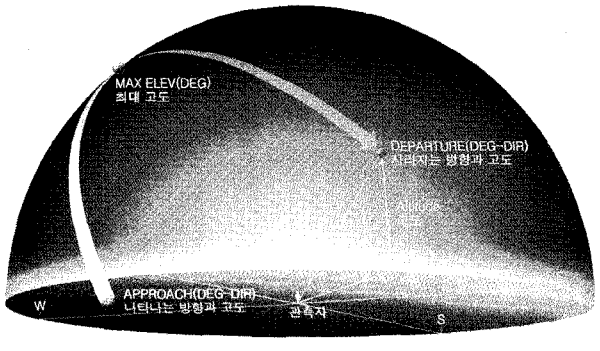
#ZHR : 6등성까지 보이는 밤하늘과 복사점이 천정에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 동안 관측되는 유성의 수. 실제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적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합삭	7	8	9	10	11	12
13 상현	14	15	16	17	18	19
20 망	21	22	23	24	25	26
27	28 하현	29	30			

◎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탑승한 ISS 보기

4월 8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이소연 씨가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으로 출발한다. 이소연 씨는 일주일 정도 ISS에 머물며 18개의 과학실험 등 다양한 우주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소연 씨가 머물 ISS는 인류가 우주 공간에 건설한 구조물 중 가장 큰 것이다. ISS가 완성되면 길이만도 108.5m나 되는데, 이는 축구장만한 규모이다. ISS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태양에서 얻는다. 마치 날개처럼 펼쳐진 거대한 태양전지판에서 햇빛을 전기로 바꿔 ISS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양전지판에 햇빛이 반사되면 지상에서는 밝은 별처럼 보이는데, 그 밝기는 해, 달, 금성 다음으로 밝을 만큼 눈에 띈다. ISS는 약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러나 이때마다 ISS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낮에는 햇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한밤중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지구 그림자 속을 지나기 때문에 역시 볼 수 없다. ISS를 볼 수 있는 시간대는 해 뜨기 전 새벽이나 해 진 후 저녁으로 한정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ISS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http://spaceflight1.nasa.gov/realdata/sightings).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 오산, 부산, 포항 등 네 개 도시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1, 2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외 지역에서는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발사 당일인 4월 8일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밤 9시 22분에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시간이 1분미만으로 짧다.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은 12일(5분)과 13일(3분)이다.



ISS 관측 자료(서울 기준)

출현 일시	보이는 시간	최대 고도	나타나는 방향과 고도	사라지는 방향과 고도
4월 7일 저녁 9시 01분	1분 미만	12°	북북서 10°	북 12°
4월 8일 저녁 9시 22분	1분 미만	13°	북북서 13°	북북서 13°
4월 9일 저녁 8시 09분	2분	14°	북 10°	북동 14°
4월 10일 저녁 8시 30분	2분	33°	북북서 13°	북북동 33°
4월 11일 저녁 8시 53분	1분 미만	42°	서북서 25°	서북서 42°
4월 12일 저녁 7시 38분	5분	31°	북북서 10°	동 13°
4월 12일 저녁 9시 14분	1분 미만	13°	서 10°	서남서 13°
4월 13일 저녁 8시 01분	3분	71°	서북서 33°	남동 22°
4월 14일 저녁 8시 22분	2분	19°	서남서 16°	남남서 13°
4월 16일 저녁 7시 31분	1분	17°	남남서 17°	남 11°